

## ‘실존적 고유성’과 관광매력물의 재인식:

발리 지역 거주관광객의 문화적 실천\*

정 정 훈\*\*

### I. 들어가는 말

이 글은 인도네시아 발리섬 우붓(Kecamatan Ubud) 지역에 거주한 장기 거주 외국인에 대한 민족지이다. 문화인류학 현지조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문화관광의 주요한 대상인 관광매력물이 부재한 농촌마을이 어떻게 관광마을로 변화했는지에 대한 과정을 고찰한다.

인도네시아는 18,000여개의 섬으로 구성된 도서(島嶼) 국가이자, 인구 2억 4천만명 중 약 88%가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이다. 적도를 중심으로 북위 5°에서 남위 10° 사이에 위치해 연중 열대성 기후를 보이는 지역이다. 도서 국가, 이슬람, 열대 날씨로 표상되는 인도네시아에서 힌두교도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발리섬(Pulau Bali)은 매우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발리는 전체 인도네시아 영토의 1.44%이며 전체인구의 0.3%를 차지한다. 인구수가 적음에도 발리는 서구의 한 조사에 따르면 인도네

---

\* 본고는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정정훈 2017) 일부를 수정·보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2-B00018).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blue3j@gmail.com.

시아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 전 세계인에게 잘 알려진 지역이다 (Hobart et al. 1996: 8). 원시림, 넓은 해안, 힌두 종교에서 파생된 의례(upacara)와 의례품은 서구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관광 요소이고, 이러한 관광요소들은 여행객에게 발리섬을 이국적인 여행지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발리는 이국적인 여행을 실천할 수 있는 대중관광지로 인식되지만, 본고의 연구대상지인 우붓 지역은 문화관광을 실천하는 지역으로 인식된다. 호텔과 사원에서 진행되는 께짜(kecak), 상향(sanghyang) 공연과 전통 농촌 조직이자 농경 방식의 일종인 수박(subak)<sup>1)</sup>은 발리 전통문화와 결합되어 중요한 문화관광 대상으로 등장하였다. 문화관광이 발리 지역에서 공식적인 정책으로 인정받는 시기는 1970년대 전후이지만, 20세기 초반부터 발리 지역의 주요한 관광유형은 문화관광으로 대표된다. 즉 문화관광은 발리 관광 역사 초기부터 전형적인 관광의 유형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발리 지역 사례가 아닌 관광 분야에서 문화관광은 대중관광의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는 대안적 측면에서 제시되었다.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1990년대 초중반에 들어 문화관광이 생태관광과 더불어 관광학계의 새로운 관심사로 부각되었다(김사헌 2005: 10). 문화관광은 고학력의 부유한 관광객이 휴가철에 기존의 관광 유형이 아닌 다른 무엇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대중관광 시장이 세분화되면서, 문화관광은 보다 분명한 대중관광활동<sup>2)</sup>으로 인식되었다(맥커처·힐러리 2008).

전통에서 비롯된 다양한 문화유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증가하

1) 수박은 대략 12세기부터 시작된 발리 전통 농업 생산체계이다. 화전농업과 대비하여 수도작 중심의 농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관개시설을 일컫는다. 관개시설 자체를 지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조직의 명칭이다. 하지만 관광객은 관개시설에 의해 만들어진 일종의 계단식 논인 사와(sawah)를 수박으로 인식한다.

2) 세계관광기구(WTO, World Tourism Organization)는 국제관광객들의 37%가 문화관광객이라고 추정한다(맥커처·힐러리 2008).

였고, 이는 관광 실천 과정에서 전통문화유산을 현지 문화의 의미나 ‘고유성(authenticity)’을 경험하는(맥켄널 1999) 수단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이는 관광객들이 ‘새로운’ 유산보다는 ‘전통적인’ 유산에 좀 더 심미적 가치와 축적된 상징성을 부여하는 시각과 맞닿아 있다 (Richards 1996: 262). 결국 관광객에게 문화관광은 문화유산관광으로 이해되고, 문화관광의 발전은 실제로 문화유산관광의 성장과 연결된다.

하지만 우붓은 관광객에게 문화관광을 실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인식되지만 관광매력물로서 문화유산이 풍부한 지역으로 상정할 수 없다.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진 문화유산이 없고, 화려하게 진행되는 의례와 크고 화려한 사원 건축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우붓 인근의 작은 마을에는 단기관광객이 만족할만한 관광대상물이 부재하기에 이 지역 관광은 주로 우붓 중심부에서 이루어진다.

산업화 시대 관광은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장소를 방문하여 여가를 즐기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국적인 풍경과 다양한 레저 활동을 즐기으로써 관광목적의 달성 측면에서 발리 지역은 해변을 위시한 이국적인 풍경, 종교 활동에 기초한 독특한 의례 행위 등 다양한 관광매력물이 분포한다. 비근한 예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대중관광의 시대에, 발리 남쪽 지역에 공항이 건설된 것은 해안지역이라는 입지적 장점과 함께 인근에 위치한 관광매력물과의 접근성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

발리 관광을 홍보하는 다양한 표상에 익숙한 관광객에게 우붓 지역이 관광지로 발전하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최근 우붓과 인근 지역을 연결하는 다양한 교통망이 구축되고, 유수의 호텔 체인에서 고급리조트 등을 건설하는 등 관광인프라가 형성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붓 지역은 공항과 다양한 편의시설이 밀집한 남부 지역에 비해 관광인프라가 부족하고, 관광객들이 일부러 시간을 내어 방

문해야 하는 위치적인 불리함이 있다.

비록 우붓 왕궁(Puri Saren Agung)이 위치하고 전통 예술 시장(Pasar Seni Ubud)이 있기에 발리의 역사·문화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붓 왕궁이 인근의 끌룽푹(Klungkung), 기안야르(Gianyar), 따바난(Tabanan) 지역과 비교하여 유적과 유물의 역사성과 스펙터클함이 상대적으로 뛰어나다고 할 수 없다. 단적으로 우붓 왕궁을 방문한 관광객이 경험한 왕궁의 규모와 형태에 대한 실망감과 아쉬움은 현장에서 쉽게 확인된다.

그럼에도 현재 우붓이 문화관광지로 명성을 획득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동안 관광의 배후지로도 인정받지 못했던 뉴꾸닝 마을(Banjar Nyuh-Kuning)과 같은 주변 마을이 관광지로 발전하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뉴꾸닝 마을은 불과 십여 년 전만해도 주변 마을에 비해 인구가 적고 마을의 규모 역시 작은 농촌지역이었다. 더불어 뉴꾸닝 마을에는 우붓 중심부에 위치한 사원, 왕궁, 예술품 시장과 같은 관광객의 호기심을 자극할만한 관광 요소가 부재하다. 최근 들어 우붓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단기관광객에게 뉴꾸닝 마을은 여전히 관광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 뉴꾸닝 마을은 우붓 인근의 다른 마을에 비하여 관광 마을로 확고한 위상을 지닌다.

본고는 뉴꾸닝 마을과 생활권역인 우붓 지역이 과거 농촌마을에서 관광마을로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특히 마을에 장기간 거주하는 외국인의 관광 과정을 고찰한다. 이들의 관광 실천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전통문화유산을 현지문화의 의미나 ‘고유성’을 경험하는(맥켄널 1999) 수단으로 인정하는 상황을 재검토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문화관광의 실천과정에서 객관적·구성적 고유성의 관점이 가진 여러 한계점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 II. ‘실존적 고유성’의 관점에서 관광매력물

관광인류학은 관광현상의 모든 측면을 연구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Graburn 1983). 이중 관광의 본질에 관한 연구는 결국 관광 경험의 본질에 관한 논의인데, 이는 1960년대에서 1970년대 관광의 주요한 논의 중 하나인 ‘고유성’에 관한 논의와 연결된다. 관광요소에서 가장 중요하게 간주된 것은 관광객이라는 개체이다. 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을 “관광”하게 만드는 장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관광객의 경험의 깊이와 열음의 정도를 낮음과 높음의 차이를 통해 분류하는 과정에서 문화관광이 추구하는 지향점이 발견된다(Mckercher & du Cros 2002). 이는 어떤 사물(흔히 역사 유물로 통용되는) 혹은 지역(역사 유적으로 통용되는)이 고유성을 가지느냐의 문제와 연결된다. 즉 여행 경험은 누가 더욱 ‘고유성’을 가진 “그것”을 많이 경험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20세기 초반 네덜란드 식민 정부의 주도로 시작된 발리문화 보호 정책은 식민통치 편의성과 자바 지역과 정서적 분리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다. 그럼에도 식민 정부의 의도와 별개로 발리 이미지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관광객에게 인식되느냐의 문제는 주목된다. 결국 오늘날 발리 전통문화라고 여겨지는 대부분의 문화상품들이 실제로 식민지시기에 형성된 점은(Dirks 1992) 발리문화가 어떤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구체화 되는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발리 전통문화에 대한 이미지 형성은 맥켄넬(MacCannell 1973, 1976, 1999)의 ‘무대화된 고유성을 어떤 방식으로 투영시키느냐의 문제와 관련된다. 맥켄넬은 관광객이 고유하고 탈신비화된 경험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관광객은 지속적으로 실제 주민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무대의 후면부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경험을 원한다. 하지만 실제 관광객의 경험은 관광 상품 기획자나 혹은 현지 주민에 의해 무대의 후면부처럼 꾸며진 무대의 전면부에서 이루어진다.

20세기 초반 발리의 민족예술은 새롭게 만들어진 전통에 대한 개념에 의해 발전하였다. 발리의 문화관광을 ‘무대화된 낙원’으로 묘사한 야마시타(Yamashita 2003)는 피카드(Picard 1996)의 “문화관광(cultural tourism)”과 “관광화된 문화(touristic culture)”의 개념을 차용한다. 이를 통해 발리 지역의 문화관광이 관광객의 시선 안에서 재창조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이 지역의 문화관광이 잘 보존된 특정 ‘유산’의 경험에서 벗어나, 20세기 전반의 식민지 체제 아래서 만들어진 ‘관광문화’의 일종인 혼합적 문화로 이해된다.

결국 발리 지역의 낙원과 문화관광의 혼합된 이미지는 숙박, 의상, 음식, 수공예품 등에 대한 기원을 찾거나 진승과정의 결과물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구성된 것이 아니다. 이를 경험하는 관광객의 자기표현, 즉 전통에 대한 해석, 선택, 이름 짓기 방식이 중요함을 역설한다. ‘전통의 발명’과 ‘만들어지는 전통’에 대한 논의(홉스봄 외 2004)는 결국 고유성을 구별하는 시각과 유사한 맥락에서 논의된다. 특히 고유성의 개념을 기존의 관광대상의 측면에서 보았던 기존의 논의에서 벗어나 관광객 경험의 측면에 대한 논의의 확장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기존의 ‘객관적 고유성(objective authenticity)’과 ‘구성적 고유성(constructive authenticity)’에 대한 대안적 개념인 ‘실존적 고유성(existential authenticity)’의 개념을 제시한 왕(Wang 1999)의 논의는 주목된다. 전자인 객관적·구성적 고유성의 개념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관광대상에 대한 관점에서 비롯된다. 객관적 고유성은 관광학의 발전에 따라 그 개념이 변화되었다. 초기의 객관적 고유성은 어떤 절대적인 대상물을 경험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이 개념은 만약 관광객이 “사실상” 절대적인 대상물을 경험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무대화된 고유성’의 개념(MacCannell 1973, 1976, 1999)으로 치환된다. 결국 이는 역사적 시각에서 ‘전통의 발명’의 개념과 상호보완적이다.

구성적 고유성 역시 객관적 대상물에 대한 논의이지만, 관광 대상물은 고정된 형태가 아닌 사회적 구성물의 결과로서 이해한다. 따라서 구성적 고유성이 가진 대상물은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즉 브루너(Bruner 1994: 408)의 시각처럼 고유성은 어떤 특정 시간에 영원히 고정되거나, 상속된 물건이 아니다. 고유성은 역사의 해석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처럼 투쟁의 과정이자 사회적 실천의 결과이다. 구성적 고유성은 결국 사회·문화적 시각에서 ‘전통의 발명’의 개념을 내포한다.

실존적 고유성의 개념은 기존의 객관적·구성적 고유성이 관광대상에 부여하는 개념이라면, 관광객의 관광경험에서 비롯된 존재론적 인식이라고 보았다. 즉 개인이 관광 과정에서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현상이다. 이는 관광대상물의 고유성의 존재와 비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한 개인이 환상적 세계를 경험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보았다. 즉 터너(Turner 1973)의 이론에 기초하여 관광객은 의례 수행과 신분 질서에 종속되지 않는 “리미널한 영역”에 들어가 자유, 평등, 동료애 그리고 동질성을 공유하는 “코뮤니타스”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존재론적 자아를 발견하고 실존적 고유성을 획득하는 것으로 보았다.

실존적 고유성을 추구하는 관광객을 탈근대 관광객으로 지칭한 김희영·김사현(2006)은 이들에게 관광대상의 고유성 여부는 관심의 대상이 아님을 주장한다. 탈근대 관광객은 일시적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것이라면 진품이 아니라도 문제 삼지 않고, 고유한 것에 연연하지도 않는다. 도리어 이들은 친숙성과 쾌적성을 더 추구하는 특징이 있다. 결국 실존적 고유성은 무질서와 해체로 대표되는 사회

환경에서 상실위기에 처한 존재적 실체의 경험의 결과이다(김희영 · 김사현 2006: 24).

주지한바와 같이 발리 지역 관광 발전에서 전통 담론에 대한 이해와 활용은 전통을 근대화의 과정의 일부로 간주하거나, 때로는 현재 문화에서 관찰되는 역동적 실체로 제시되어 왔다. ‘만들어진 전통’이라는 담론에 근거하여 발리 전통문화는 원초적 기원과 전승 과정에 대한 논의로 확대되고 “의미 없음”과 “끊임없는 선택과 결정” 과정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결국 발리 지역의 문화관광의 실천은 여행자 스스로 관광을 통해 의미를 찾고 ‘고유성’을 경험하는 과정의 일환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고의 주요 연구대상 지역인 우붓 지역과 뉴꾸닝 마을의 관광실천 과정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Ⅲ. ‘문화예술마을’ 우붓과 ‘반자르’ 뉴꾸닝

전통 발리 예술은 항상 발리인의 종교와 믿음에서 비롯된 장식과 묘사를 동반한다. 따라서 예술인 개인의 필요에 따라 행위가 실천되기 보다는 종교에 근거한 예술 행위가 우선적으로 실천된다. 발리 고대 왕궁은 과거부터 종교적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 예술 발전의 후원자로 역할을 하였다. 왕궁을 장식하거나 종교 의례를 진행하기 위해 왕궁에는 조각가, 화가, 음악가, 댄서, 금속 공예가, 직공 등이 필요했다(Mann 2013: 45).

우붓 지역에서 왕족을 중심으로 서구 문명의 수용과 발리 문화와의 접목은 서구 교육을 받았던 일부 왕족들의 노력의 산물이다. 특히 서구 예술인들의 우붓 지역 거주는 현지 주민에게 예술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취시켰다. 우붓 지역에 처음 정착한 예술가였던 스파이스는 독일출생의 러

시아인으로, 초기에는 바타비아, 수라바야 등지에서 다양한 예술 작품 활동을 하였다. 이후 우붓 왕궁의 초청으로 1927년 우붓 지역으로 완전 이주하였다.

스파이스는 우붓 왕궁의 직·간접적인 후원으로 발리 관련 영화<sup>3)</sup>, 책 등을 제작하여 이를 서구 세계에 소개하였다. 당시 스파이스와 더불어 발리에 머물렀던 보넷(Rudolf Bonnet)의 활동 역시 주목된다. 보넷은 발리 문화를 인정하고 관광객이 발리 문화를 좀 더 매력적이고 관심 있는 대상으로 만드는 역할에 집중하였다(Mann 2013). 그는 1929년 처음 탐박시링(Tampaksiring) 지역에 머물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붓 인근 지역인 펠리아탄(Peliatan) 왕국으로 초대되었다. 이후 우붓 지역을 중심으로 예술 작품 활동을 하였다.

스파이스와 보넷을 비롯하여 미드(Margaret Mead), 베이트슨(Gregory Bateson), 맥필(Colin McPhee) 등은 발리 관련 책과 음악 등을 서구 세계에 소개하였다. 더불어 현지 예술인에게 그림과 조각에 대한 교육과 함께 영어 교육까지 진행하였다. 현지화가들 역시 발리를 주제로 서양 그림물감과 고유의 염료를 혼합하거나 원금벌 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새로운 발리 양식을 창조했다(가중수 2010: 324).

서구 예술가와 학자들의 활동은 우붓 지역 자체적으로 예술 작품을 생산하는 지역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하여 우붓이 주변 지역의 상업 중심지였던 역사적 사실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객과 예술인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2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까지 우붓 지역이 발리 예술의 중심 지역으로 거듭나는데 이바지하였다.

2차 세계대전과 인도네시아 공화국 수립 과정의 정치적 혼란기를

---

3) 스파이스는 발리 전통을 기반으로 ‘Goono-Goono, An Authentic Melodrama’, ‘Island of Demons’와 같은 영화를 제작했다.

지나 발리 지역이 전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전하게 된 계기는 제트관광을 활용한 대중관광의 성장과 연결된다. 1960년대 꾸따 지역에 건설된 공항과 사누르 지역에 세워진 발리 비치 호텔은 대중관광의 시작과 함께 발리섬이 세계적인 관광지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 이 시기 관광의 변화양상에서 주목되는 점은 우붓 관광이 이전과는 다르게 하루 만에 다녀올 수 있는 여행지로 변모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1970년대까지 우붓 지역 방문자는 예술인, 전통문화와 예술에 관심 있는 일부 여행객 그리고 새로운 모험을 찾아 떠나는 히피족이 대부분이었다. 비록 우붓 지역이 대중관광지로 발전하지는 못했지만 이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특성과 결부되어 발리 관광에 있어 독특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 즉 예술 작품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상품이 개발됨으로써 문화관광 지역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우붓은 발리 남부 지역과 달리 전통회화, 목공예상품, 전통 종교의례를 향유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인식되었다. 결국 우붓 지역은 1970년대를 기점으로 발리섬에서 ‘문화관광’을 향유할 수 있는 지역으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Mann 2013: 101-102).

뉴꾸닝 마을을 의미하는 ‘반자르 뉴꾸닝’은 인도네시아 행정체계에서 발리 지역의 관습법을 인정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행정단위이다. 반자르는 발리어에서 기원했으며 상호부조의 전통을 가진 사회조직으로 발리 지역에서 데사(desas)<sup>4)</sup>의 하위 단위에 속하는 행정 체계이다. 즉 한 개의 데사에 여러 개의 반자르가 존재하는 형태로 행정체계가 구성된다.

반자르는 고유한 관습법에 의해 운영되고 지리적으로 인근의 반자르와 명확하게 구분된다. 반자르 구성원은 결속력이 높는데 다른

4) 자바 지역에서 데사는 다른 마을들과 구별되고 고유한 관습법에 의해 운영되는 자치 단위로서 “영토와 주민으로 구성된 한 묶음의 사회단위”이다(Jay 1969 [조윤미 2006: 104 재인용]).

측면에서 이러한 결속력은 마을 주민 상호간에 준수해야 하는 규칙과 의무를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매달 개최되는 반자르 주민모임 등에 참석하지 않는 주민은 이에 상응하는 벌금이나 벌칙 등이 주어진다(Pringle 2004: 19).

반자르 구성원은 대체적으로 여러 친족 집단 혹은 지역 종족들과 사원을 중심으로 하는 집합체이다. 따라서 반자르는 마을 공동체가 공동으로 소유하여 사용하는 시설이 있다. 마을 회의나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수행하는 마을 회관인 발레 반자르(bale Banjar), 시장(pasar) 그리고 전통음악인 가믈란을 공연하는 연주단(sekaha)을 소유한다(Pringle 2004: 19). 본고에서 필자는 반자르 명칭을 사용하는데 있어 해석어인 ‘마을’을 주로 사용하여 반자르 뉴꾸닝은 ‘뉴꾸닝 마을’로 표기하지만, 반자르가 가진 사회·문화적 특성이 내포된 의미를 전달할 때는 ‘반자르’를 강조하여 표기한다.

뉴꾸닝 마을은 지리적으로 우붓 왕궁에서 남쪽으로 약 5km 거리에 위치한다. 우붓 중심가 남쪽에 위치한 일명 원숭이 사원(Mandala Suci Wenara Wana)라고 불리는 지역의 남쪽이 마을의 북쪽 구역과 맞닿아 있다. 뉴꾸닝이라는 마을 지명은 발리어로 노란 코코넛을 의미하는데 마을과 인근 숲에 코코넛 나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뉴꾸닝 마을이 인근 마을과 비교하여 코코넛 나무가 두드러지게 많지는 않고 주민들 역시 마을 이름 유래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다.

마을은 지형적으로 두 개의 강인 우스 강(Sungai Wos)과 툰두 강(Sungai Tunduh)과 접해 있으며, 뉴꾸닝 대로(Jl. Raya Nyuh Kuning)는 마을 중심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뉴 가딩 길(Jl. Nyuh Garding)과 뉴 불란 길(Jl. Nyuh Bulan)을 만난다. 뉴 가딩 길의 연장선에 뉴 보죽 길(Jl. Nyuh Bojog)이 위치하고 이 길의 끝은 원숭이 사원의 후문과 연결된다. 필자가 현지조사를 진행했던 2012년부터 2014년

까지 마을의 총 인구는 약 800여명으로 약 170여 가구가 거주하였다. 이중 20세 이상의 성인 인구는 약 500명이다.

마을 규모는 인근 마을이 대략 3,000명에서 10,000명인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수와 작은 규모를 가진 반자르이다. 뉴꾸닝 마을이 주변 마을과 구별되는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장기간 마을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많다는 것이다. 코헨(Cohen 1972)은 관광객과 그들의 경험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관광객 유형 분류를 시도하였다. 관광의 목적에 따라 그 유형은 구분되지만 관광객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결국 자신의 주거지로 되돌아간다는 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고는 우붓과 뉴꾸닝 마을에 장기간 거주하는 외국인들 ‘거주 관광객(residential tourist)’이라고 지칭한다.

필자가 현지조사를 진행한 기간 대략 60여명의 외국인 마을에 거주하였고, 2010년과 2011년 마을통계에 의하면 각각 50명, 57명의 외국인이 마을에 거주하였다. 공식적으로 산출된 외국인의 수는 대체적으로 3개월 이상 거주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3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거주한 외국인들과 마을의 소규모 호텔에 짧은 기간 머무르는 관광객을 포함할 경우 대략 100여명의 외국인이 마을에 상주하고 있었다.

뉴꾸닝 마을의 역사적 변화 과정은 우붓 지역 관광발달 과정의 연장선에 있다. 우붓 지역이 1920년대 이후 ‘문화예술마을’, ‘예술인마을’로 관광지로 성장 기반을 닦아갈 때, 뉴꾸닝 마을은 여전히 작은 규모의 농촌마을이었다. 관계농업을 위한 농토가 마을 곳곳에 있었지만, 규모가 크지 않아 하나의 수리조합으로 구성되지는 않았다. 뉴꾸닝 마을이 하나의 반자르로 인정받게 된 것은 인도네시아 공화국 수립 이후이다. 마을의 행정과 전통 의례 지도자인 끌리안(Kelian)을 1950년대부터 선출하였고 현재까지 5년 주기로 새로운 끌리안을 선출한다.

우붓 지역은 1960년대 이후 ‘문화예술마을’로 거듭나지만 당시까

지 뉴꾸닝 마을은 여전히 우붓 관광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농촌 마을로 남아있었다. 도로 포장도 되지 않았던 지역이었고, 농번기에 일부 농민들이 목공예를 생산하였지만 전문적인 제작자나 대량 판매자로서 성장하지는 못했다. 이는 주민들이 목공예 생산 작업을 전문 직업으로 여기지 않았고, 농번기에 하는 부업의 일종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더불어 관광객들 역시 생산된 목공예 상품을 특정 반자르의 것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우붓 지역에서 구매 가능한 동종의 상품으로 인식하였다.

뉴꾸닝 마을이 관광지로 발전하는 시기는 2000년대 이후이다. 비록 관광매력물로서 오랜 역사를 가지거나 혹은 스펙터클한 문화유산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우붓 지역 관광의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관광 산업이 발전 중이다. 수박을 활용한 생태관광과 반자르 전통에서 비롯된 문화관광이 우붓 지역 관광 발전을 이끌어 왔다면, 뉴꾸닝 마을은 관광객이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장소이다. 뉴꾸닝 관광 발전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거주관광객의 존재이다. 장기 거주 기간을 얼마간의 기간으로 산정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단기 거주관광객과 비교하여 그들이 머무는 장소와 방법을 통해 일정하게 구별된다.

단기 거주관광객이 호텔이나 리조트 등에 머무른다면, 장기 거주관광객은 마을 주민의 집을 임대하고 현지 시설을 이용한다. 뉴꾸닝 마을의 경우 한 달 이상 집을 임대할 경우 기부금 명목으로 마을 주민세를 내야하기에, 기부금을 납부하는 외국인을 거주관광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뉴꾸닝 마을은 우붓 지역과 비슷하게 서늘한 기후, 웅장한 자연환경, 발리 전통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마을로 인식되면서 관광 지화 되었다.

현재 뉴꾸닝 마을은 ‘작은 우붓’이라는 표현이 적합할 정도로 주민의 생계수단이 온전히 관광업에 맞춰져 있다. 주민 대부분 관광업

과 관련된 업종인 숙박 시설 운영, 호텔 관련 서비스업, 택시 운전 그리고 관광 상점이나 식당 등을 운영한다. 친족의 비율이 높고, 대가족 단위로 가구가 구성된다. 결혼 후 분가를 한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마을에 계속 거주한다. 따라서 주민 대부분 직·간접적으로 관광업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마을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관광객과의 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뉴꾸닝 마을의 이러한 특징은 주민의 사회·문화적 행위가 관광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 IV. 우붓 지역에서 거주관광객의 삶의 방식

관광객의 유형을 분류한 학자인 코헨(Cohen 1972)은 관광객을 제도화된 관광객과 비제도화된 관광객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의 기준은 관광객이 현지사회와 얼마나 밀접하게 접촉하느냐에 따라 구별되는데, 대중관광의 시대에 대표되는 관광객의 유형이 제도화된 관광객이다. 이에 반해 비제도화된 관광객은 어떤 특정 형태의 관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자유로운 형태의 탐험가적인 관광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코헨의 관광객 유형의 분류에 관한 연구가 주로 1980년대 이전에 이루어졌기에, 당시 대중관광을 하지 않는 문화관광이나 생태관광을 추구하는 관광객을 비제도화된 관광객으로 이해하였다. 최근 들어 비제도화된 관광객은 경제적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교육적, 모험적 차원에서 ‘주류관광객’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을 지닌다(지선진 2006: 369). 이런 측면에서 우붓이나 뉴꾸닝 마을에 거주하는 거주관광객은 비제도화된 관광객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붓 곳곳에 위치한 식당이나 커피숍 등지에서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지도와 여행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여행 책자와 지도이다. ‘우붓 맵(Ubud Map)’, ‘우붓 커뮤니티(Ubud Community)’, ‘우붓 라이프(Ubud Life)’, ‘아피마거진(アピマガジン)’ 등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고, 이들 책자들 대부분이 무료로 제공되기에 관광객들이 손쉽게 획득할 수 있다. 대형식당, 요가학원 그리고 호텔의 후원으로 제작된 책자와 지도의 내용은 단기관객과 더불어 거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

일례로 영어로 제작된 우붓 맵의 앞면에는 발리 지도와 뒷면에는 우붓 중심가의 지도가 그려져 있다. 발리 전도가 그려진 앞면에는 27개의 광고가 실려 있고, 뒷면에는 25개의 광고가 실려 있다. 광고 중 일부 식당이나 마사지사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광고는 우붓 지역에서 중·장기로 거주하는 거주관광객이 관심 있게 볼만한 업종이 소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우붓에 거주하는 요가인을 위한 요가 관련된 학원(Yoga Barn, Intutuve Flow), 요가 관련 축제(Bali Spirit Festival) 그리고 요가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되는 자연주의 관련 시장(Organic Farmer's Market)이나 식당(Juice Ja Cafe)에 대한 광고가 있다. 거주 관광객을 위한 부동산 관련(Ubud Property) 업종 역시 소개된다. 지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식당, 카페, 마사지사업 역시 단체관광객이나 단기관객보다는 거주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이상과 같이 우붓 지역의 거주관광객은 우붓 관광 산업의 주요한 대상으로 여겨진다. 이들을 위한 시설인 인터넷 카페, 중장기 숙박업소, 오토바이 대여업소, 비자갱신 관련 서비스센터 등이 존재하고, 상업시설들은 쿠폰발행, 금액 적립제도, 끼따스(KITAS)<sup>5)</sup> 소유자에

---

5) 끼따스(KITAS, Kartu Izin Tinggal Terbatas)는 단기체류허가증(신분증)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일을 하는 등 장기간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매년 연장신청을 필요하며, 최대 5회까지 갱신이 가능하다.

대한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한다. 결국 우붓 방문객 중 하나의 큰 분류를 거주관광객으로 상정할 수 있고, 관광 관련 시설과 서비스가 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은 주목된다.

뉴꾸닝 마을의 경우도 마을에 위치한 호텔에서 단기간 거주하는 관광객을 제외하고 빌라 등을 임대하여 장기간 거주하는 외국인이 있다. 우붓 사회에서 이들은 ‘우붓디안(ubudian)’으로 통칭하는데, 우붓에 장기간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는 의미로 통용된다. 더불어 우붓디안은 이들의 삶의 형태, 즉 어디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고 자연주의 관련 식생활과 삶을 추구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하지만 우붓디안의 개념과 어떤 집단을 지칭하는지 명확하게 논의되지 않았다.

거주관광객은 1960년대 이후 우붓 지역에 머물렀던 예술인, 전통 문화에 관심 있는 관광객, 히피족으로 상정할 수 있다. 이후 거주관광객이 우붓 지역에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대략 2000년대 전후이다. 이는 우붓 지역이 ‘예술인 마을’로 표상되고, 꾸따로 대표되는 남쪽 휴양지보다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고 복잡하지 않은 교통과 분위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더불어 2002년과 2005년 남부 지역에서 일어난 폭탄 테러는 기존 남쪽 지역에 거주한 거주관광객이 우붓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

뉴꾸닝의 경우 우붓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살기 좋은 마을로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마을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외국인이 거주한다. 우붓과 뉴꾸닝에 거주하는 거주관광객, 즉 우붓디안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요가와 자연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요가인이 존재한다. 우붓 인근에는 외국인이 운영하고 정규 과정이 있는 요가학원이 총 3개가 있다. 그 외 개인이 운영하거나 요가 이외 필라테스 등 비슷한 범주로 이해되는 관련 학원이 다수 존재한다. 뉴꾸닝 마을에도 마을 주민이

운영하거나 외국인이 운영하는 요가학원이 존재한다. 요가인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일 년씩 우붓 등지에 머물면서 요가 활동을 한다. 매년 두세 차례 진행되는 요가 티처스 트레이닝(Yoga Teacher's Trainings)에는 전 세계에서 약 100여명의 요가인이 방문하여 우붓과 주변 마을에서 두세 달씩 거주한다.

두 번째 유형은 우붓의 쾌적한 환경, 신선한 음식 그리고 따뜻한 날씨를 즐기기 위해 중장기로 머무르는 이민자들이다. 발리 전 지역에 약 10,000여명의 호주 출신 이민자가 있고, 이 중 약 10%가 우붓 지역에 거주한다(Macrae 2014: 10). 이민자들 중 일부는 아이와 함께 이주한 경우도 있는데 국제학교인 그린 스쿨(green school)과 펠랑이 스쿨(pelangi school) 등에서 영미식 교육을 받는다. 이민자들은 발리 생활 초창기에는 대체로 지리적 낯설음으로 우붓 중심부에 거주하지만 생활에 안정을 찾고 지역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면서 우붓 주변 마을로 이사한다. 아무래도 단기관광객이 많은 우붓 중심부보다 인근 마을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이 훨씬 뛰어나고 비슷한 가격대에 좀 더 훌륭한 시설의 빌라를 임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유형은 발리 남성과 결혼하거나 혼자서 머무르는 일본 여성들이다. 발리 남성과 결혼하였지만 이들 대부분이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모국과의 교류를 한다는 점에서 거주관광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더욱이 이들 일본 여성들은 우붓 지역에서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그들이 가진 언어적 능력과 문화적 친근함을 내세워 일본과 관련된 관광산업에 종사한다. 이런 측면에서 일본인 여성의 정체성은 일종의 경계인이자 거주관광객으로 인식된다.

야마시타(Yamashita 2003: 94)가 1990년대 진행한 연구에 의하면 발리 전역에서 공식적으로 발리 남성과 결혼한 여성은 200여명이고 비공식적으로는 40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필자가 현지조사 기간 진행했던 인터뷰에 의하면 우붓 지역에만 약 200여명 정도의 일본인

여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야마시타가 1990년대 조사한 일본 여성들이 대체적으로 1960년대에 태어난 일본 여성이었다면, 필자가 인터뷰한 여성들은 1980년대 생이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최근 들어 발리인과 결혼한 여성의 수가 줄어드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 거주관광객은 국가 단위로 혹은 같은 언어권에 속한 개인들이 커뮤니티를 구성함으로써 우붓에 거주한다. 커뮤니티는 대체적으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으로 구성되는데 주로 영어와 일본어를 사용한다. 서구권 국가의 사람들이 영어를 기반으로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다른 언어 사용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수가 있는 일본인 여성들의 커뮤니티가 존재한다.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유사성을 토대로 커뮤니티가 시작되지만, 커뮤니티 구성의 원동력은 자연주의 실천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서 비롯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자연주의 관련 상품의 판매와 소비를 위한 일련의 활동과 연관되는데, 이 지역의 거주관광객이 도시와는 다른 삶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주의에 대한 가치를 찾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서구인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자연주의 시장(이하, 우붓 오가닉 마켓)과 일본인 중심의 자연주의 시장(이하, 일본인 시장)의 사례를 통해 거주관광객의 삶의 방식을 살펴보자. 우붓 오가닉 마켓의 공식 명칭은 ‘우붓 오가닉 파머스 마켓(Ubud Organic Farmer’s Market)’으로 2006년 12월 우붓의 남쪽에 위치한 팽오세칸 거리(Jl. Pengosekan)의 이탈리아 식당에서 시작되었다. 현재까지도 같은 위치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에 시장이 열린다. 우붓 오가닉 마켓은 총 16곳의 식당이나 농장이 판매자로 등록(2016년 기준)되어 있다. 필자가 현지조사를 진행했던 2014년에 총 13곳의 판매자가 등록되었고, 매년 한두 곳의 새로운 판매자가 등록을 한다.

우붓 오가닉 마켓은 자연주의 식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생산자

와 소비자를 연결하는데 설립 목적을 둔다. 구체적으로 총 3가지 원칙으로 마켓을 운영하는데 첫째는 지역 커뮤니티를 돕기 위해 운영한다. 둘째는 자연주의 식품이나 농산물 생산자들의 경제적 독립을 돕기 위함이다. 셋째는 소규모 사업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기 위해 운영된다. 판매되는 상품은 농약 등 화학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 식품 위주로 판매되는데, 과일, 채소, 코코아, 빵, 잼, 말리 커피, 쌀, 밀가루 등이 판매된다. 기타 유기농 제품인 천연 약품이나 천연 모기 기피제 등도 판매된다.

매주 토요일 아침 우붓 오가닉 마켓이 열리는 장소의 풍경은 소규모 시장이 연상된다(<사진 1> 참조). 우붓 오가닉 마켓의 이용자는 주로 우붓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이들 대부분은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시장을 방문한다. 서구인들이 주요 소비자이고, 아주 소수의 일본인과 한국인이 때때로 이곳을 방문한다. 상인들 대부분은 발리 주민이지만,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방문하는 주민을 만나기는 매우 어렵다. 시장이 열리는 장소가 우붓에서 유명한 이탈리아 식당 중 하나이기에 일부 관광객이 이곳을 우연히 지나가면서 구경을 하고 잼 등을 구매하지만 그 수가 많지는 않다. 시장이 열리는 시간은 공

<사진 1> 우붓 오가닉 마켓



식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이지만 실제로 정오를 전후로 대부분의 상인들은 철수를 한다.

주지한바와 같이 우붓 오가닉 마켓의 설립은 유기농 제품의 생산자와 이의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를 연결하는데 목적이 있다. 판매자들은 우붓 시내에서 자연주의를 표방하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물건을 내오거나 우붓 인근의 유기농 농장을 운영하는 농부들로 구성된다. 소비자들 역시 시장의 방문 목적을 정보 획득, 친목 도모 등에서 찾지만, 궁극적으로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유기농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주요 방문 이유이다.

따라서 시장이 열리는 날 거주관광객은 정보 교환과 친목을 도모하지만 시장을 기반으로 다른 모임 등을 구성하여 특별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도리어 우붓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관광객들의 성향에서 알 수 있듯이 최소한의 관계만을 유지한 채 복잡하고 번잡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는 경향도 이곳 시장에서 엿볼 수 있다.

거주관광객의 공동체 모임으로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는 일본인 시장이다. 매주 일요일 뉴꾸닝 대로에 위치한 식당에서 운영되는 일본인 시장은 한 일본인 부부에 의해 시작되었다. 일본인 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 뒤쪽에 위치한 대나무로 지어진 약 10여 평의 2층 건물에서 운영된다(<사진 2> 참조).

앞서 논의한 우붓 오가닉 마켓이 유기농 상품을 판매하는 상업적 성격으로 시작되었다면, 이에 반해 일본인 시장은 우붓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정보교류 등 커뮤니티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일본인 시장은 2009년도에 시작되었고 현재까지도 일본인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일부 타 국적의 거주관광객들이 방문하는 형태를 보인다. 일본인 시장의 운영자인 아이리(Airi)는 일본인 시장의 시작과 운영 과정을 이렇게 설명한다.

<사진 2> 일본인 시장



처음 시장을 시작할 때 시장은 사람들을 끌어 모으기 위한 수단  
에 불과했어요. 일본인 여성들이 우붓 지역에 많이 거주하는데  
이들 상호간에 모임이 거의 없었어요. 일부 친한 사람들끼리 아  
는 정도였으니. 일본인의 성격인 것 같기도 한데 별로 크지 않은  
우붓에 살면서도 친한 친구 집 방문을 꺼리기도 하죠. 당시 제가  
새로운 가게를 시작한 시점이었고, 가게 뒤편에 카페 등을 활용  
하자는 생각이 떠올랐죠. 시장을 처음 시작 할 때 지금도 그렇지  
만 매주 일요일 새벽에 남편인 키무라(Kimura)가 여기서 한 시간  
넘게 걸리는 브두쿨(Bedugul)에 가서 유기농 채소와 과일을 사왔  
죠. 명색이 시장이고 특히 유기농 시장을 표방하니까 관련 제품  
이 필요해서요. 그래도 올해까지 3년 하니까. 인근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빵, 두부, 두유 등을 직접 만들어서 가져오고. 한국인  
들도 김치를 만들어서 판매하고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1  
세부터 3세의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방도 운영해요. 일본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선생님이 일본어로 노래와 춤  
등을 가르치는 곳이죠. 소정의 비용만 지불하면 누구나 참여 가  
능한데 대부분 발리인과 결혼한 일본인 여성들의 아이들이에요.  
<아이리(Airi, 일본 출신 거주 외국인). 여성. 40대. (2012. 10. 3)>

시장을 매개로 시작된 일본인 커뮤니티는 현재 다양한 활동을 펼  
치고 있다. 특히 2014년을 전후로 아이리씨의 식당이 큰 규모의 자

연주의 식당과 유기농 제품 판매처로 확장되면서 그 위상은 더욱 높아졌다. 일본인 시장의 성공에는 식당 주인인 아이리와 키무라의 개인적 노력과 함께, 어린이 놀이방, 인도네시아어와 영어 강의, 요가 수업 등이 이루어지면서 거주관광객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우붓 지역에서 관광을 통한 마을 발전의 동력으로 거주관광객의 역할은 중요하다. 거주관광객이 늘어나면서 각 국가별 혹은 특정 언어권을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커뮤니티는 유기농 제품의 판매와 소비가 이루어진 시장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이를 유지한다. 유기농 제품의 판매와 소비가 이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구성하는 이유가 되지만, 거주관광객 대부분이 타국에 거주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외로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커뮤니티 활동은 더욱 활성화 된다.

## V. 발리 전통문화의 재인식

대중관광 시대 관광대상물의 부재와 위치적 불리함은 뉴꾸닝 마을이 관광지로 성장하는데 한계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관광 형태가 변화하는 1990년대 이후 우붓 지역을 비롯한 인근 마을이 가진 기존의 한계가 긍정적인 면으로 변모하는 계기가 발생한다. 주목되는 지점은 뉴꾸닝 주민과 거주관광객의 ‘전통’ 찾기 움직임은 이런 변화의 시발점이 된다.

내가 초등학교 다니던 90년대에는 뉴꾸닝 주민 중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 농업에 종사하거나 건물 짓는 건설 인력도 제법 있었고 일부 주민이 호텔이나 식당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관광객을 위해 게스트 하우스 운영하는 주민도 있고 사롱이나 목공예품 떼다가 파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수가 많지는 않았어.

<자야(Jaya, 마을지킴이). 50대. (2013. 12. 22)>

자야(Jaya)의 진솔처럼 2000년대 이전 뉴꾸닝 마을은 관광지 보다는 농촌마을이었고, 주민 중 일부만이 관광산업에 종사하였다. 하지만 맥레이(Macrae 1999: 138)의 기술처럼 1990년대 우붓은 소수의 관광객이 이 지역을 방문하고, 주민은 이들에게 숙박, 음식 그리고 다양한 문화자원을 제공하였다. 관광 관련 시설인 호텔, 레스토랑, 상점들이 증가하였고, 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자금이 우붓 지역으로 유입되면서 이 지역에 새로운 중산층이 형성되었다.

2000년대 전후 우붓 지역에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 출신의 대규모 관광객의 방문과 숙박, 유기농 식품, 요가 등으로 대표되는 생태관광객의 방문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다. 특징적인 것은 당시 발리 전통 건축 양식을 따르는 식당과 호텔 등이 각광을 받게 되었고, 전통문화 상품을 판매하는 상점 등이 상업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특히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제공하는 계단식 논 등 숙박 관련 풍경이 각광 받게 되면서, 대중관광 시대 우붓 중심지에서 이루어지던 관광의 범위가 뉴꾸닝 마을과 같은 주변 지역까지 확장되었다.

관광 형태의 변화 과정에서 주목되는 점은 관광객의 발리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이다. 현지주민의 생활양식인 거주지, 숙박풍경, 현지음식, 종교의례 등에 대한 관광객의 인식이 ‘불편함’, ‘구식’, ‘무관심’, ‘위험한’ 그리고 ‘신기한 광경’이라는 인식에서 ‘자연 친화적’, ‘안전한’, ‘보존해야 할 대상’ 그리고 ‘함께 경험해야 할 문화적 양식’으로 인식 변화를 초래했다.

우붓 지역을 중심으로 이러한 변화의 단상들은 이전 시대 ‘전통 찾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과거에는 발리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이를 서구인의 시선으로 재창조하는 과정을 보았다면, 2000년대 전후로 발리 전통문화 자체를 존중하고 주민 스스로 이를 실용적으로 변모시킨다는 점이다. 관광객의 인식 변화의 양상을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제시한다.

첫 번째 인식 변화의 단초는 발리인의 거주공간인 전통 가옥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수박의 풍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다. 천장이 높고 필요한 부분만 벽으로 마감 처리 되어 있는 발리 전통 양식의 가옥 구조와 논 풍경은 특히 서구 관광객에게 매력 있는 풍경으로 비쳐진다. 발리 지역에서 고급 식당, 빌라, 호텔 등은 대부분 논 풍경 소위 ‘라이스 필드 뷰(rice field view)’를 배경으로 건설된다.

과거 찌짜(cicak)이나 토젝(tokek)와 같은 과충류가 출몰하고, 모기나 파리의 서식지였던 발리 전통 가옥이나 논 주위의 주택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논을 배경으로 음식이 차려진 식탁은 고급 음식점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대부분의 고급 빌라들은 논을 볼 수 있는 위치에 건설된다. 대중관광 시대 농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서 논을 무분별하게 개간했던 현실과 비교하면 정반대의 상황이 도래하게 되었다.

<사진 3> 수박 인근의 고급 빌라



두 번째 인식 변화는 우붓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과 결부시켜 이해할 수 있다. 우붓 지역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발리 관광의 시대적 조류에서 새롭고 대안적인 비전을 제시했던 지

역이다. 발리 폭탄 테러 이후 급격하게 감소했던 관광객의 수는 2004년을 전후로 2002년 이전의 관광객 수를 회복했고, 우붓 지역은 새로운 유형의 관광이 시작되었다. 특히 발리 스피릿 페스티벌과 같이 “영적인” 관광을 추구하는 관광객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영적 관광과 관련된 관광산업은 현재 우붓 관광의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한다. 수십 개의 스파와 요가센터 그리고 채식과 같은 가공되지 않은 음식 등을 판매하는 식당들이 우붓 곳곳에 생겨났고, 이를 이용하는 관광 집단이 양상 되었다. 예를 들어 2014년 발리 스피릿 페스티벌에는 6,000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였고, 이들 대부분은 페스티벌을 전후로 몇 주나 몇 달씩 우붓 지역에 머물렀다(Macrae 2014).

거주관광객들 대부분은 우붓에 머물면서 요가를 하고 유기농 음식 먹는 등 영적 관광과 관련된 것을 추구한다. 이들 집단에게 과거 아지노모토나 미원 등으로 대표되는 ‘위험하고’, ‘건강하지 않은’ 인도네시아 음식은 현재 유기농 재료를 사용하고 채식 위주로 구성된 ‘안전한’, ‘건강한’ 발리 음식으로 인식된다.

세 번째 인식 변화 역시 급격하게 늘고 있는 거주관광객과 관련된 다. 호주를 비롯한 서구의 은퇴 이민자에 대한 특별 비자 프로그램이 1999년에 시행된 이후, 많은 수의 외국인이 발리에 거주하게 되었다. 이들 이민자에게 날씨와 저렴한 생활비용 등은 많은 수의 외국인이 발리에 거주하는 요인이 된다.

현지 주민의 일상생활이자 종교적 행위인 힌두 의례는 발리 관광의 초기부터 관광객에게 호기심의 대상이다. 단기관객이 우연히 접한 마을 의례 등은 그들에게 ‘신기한’ 종교 의례의 풍경이다. 때에 따라서 가이드를 통해 간단한 설명을 듣지만, 의례 진행과정, 의미 등을 이해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하지만 거주관광객에게 마을 의례는 단기관객과 달리 조금 더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우붓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 박정진씨는 종교 의례를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우붓에서 발리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고 있으니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종교 의례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내가 운영하는 가게에 직원들이 차낭과 차루를 집에서 매일 준비하거나 지나다니는 차낭 파는 아주머니에게 구매해서 가게에 가져다 놓아요. 나야 힌두교를 믿지 않고 내 가게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계속 가져다 놓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니 발리인은 자신이 일하는 곳 역시 신의 보살핌과 악귀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믿음이 있기에 차낭과 차루를 바치는 일을 매일 하는 거래요. 내 사업 더 번창하라는 의미이니 내 입장에서 그런 마음이 고맙죠. 요즘 가게 운영비로 차낭하고 차루 준비하라고 한달에 십만루피아(IDR. 200.000)씩 주고 있어요.

<박정진(현지 한국인 사업가), 35세. (2014. 03.25)>

위의 언설처럼 거주관광객이 이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실천하는 사회적 행위는 결국 현지 주민의 삶을 이해하고 동화되는 과정의 일환이다. 한국인 박정진의 사례처럼 발리 지역에 머물면서 현지 주민의 문화를 이해하고 때로는 함께 실천하는 과정을 겪는다. 뉴꾸닝에 거주하는 거주관광객들 역시 현지주민과 함께 마을 사원 의례에 참가하고, 네삐(Nyepi)와 같은 전통 의례날 발리인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기에 하루 동안 집안에서 불도 켜지 않고 바깥출입을 하지 않는 번거로움을 감수한다. 결국 발리 사회에서 거주관광객의 증가는 여행객에게 단지 ‘신기하고’, ‘낮선’ 광경이었던 이들의 문화적 행위가 ‘함께 경험하고 느껴봐야 할 문화’로 변모하게 한다.

발리 전통 문화에 대한 관광객의 재인식 과정은 발리 지역에서 새로운 관광 유형과 관광객 집단의 출현을 이끌었다. 과거 대중관광과 문화관광 시대에 뉴꾸닝 마을은 숙박, 편의시설 그리고 관광매력물 등 관광요소의 부족으로 관광객에게 각광을 받지 못했던 지역이었

다. 하지만 거주관광객을 중심으로 발리 전통문화에 대한 재인식 과정은 상대적으로 관광인프라가 부족했던 뉴꾸닝 마을이 새롭게 조명 받는 계기가 되었다.

## VI. 뉴꾸닝 마을의 거주관광객

발리 전통 문화에 대한 관광객의 재인식 과정은 새로운 관광 유형과 관광객 집단의 출현을 이끌었다. 과거 대중관광 시대에 주목받지 못했던 반자르는 2000년대 전후로 새롭게 각광 받는다. 특히 새로운 유형의 관광객 집단인 거주관광객은 기존의 대중관광객과 달리 ‘장기간 거주’라는 차별성이 있다.

필자는 뉴꾸닝 마을에 “여행” 오고 “거주”한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거주관광객들의 여행의 목적과 추구하는 가치에 주목한다. 러시아 출신인 이고르와 안나 커플이 뉴꾸닝 마을에 거주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욕구의 충족에서 비롯된다.

나는 뉴꾸닝 마을이 마치 섬 같아서 좋아요. 물론 배를 타고 우붓 시내로 나가지는 않지만, 오토바이만 타고 가면 금방 시내로 갈 수 있으니. 나야 남자친구인 이고르가 필요하면 오토바이로 데려다 주니까 크게 불편한 건 없어요. 가끔 걸어서 우붓으로 가면 한 20분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운동 삼아서 갈 수 있으니 괜찮아요. 밤에 원숭이 사원 지나갈 때는 가로등이 있어도 조금 무서운데, 마을 안으로 막상 들어오면 무섭지는 않아요. 마을 사람들이 가끔씩 눈으로 인사도 해주고, 해질녘에 전통의상을 입은 주민이 단체로 사원에 가거나.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전통의상을 입고 다니는 모습이, 도리어 더 안전하게 느껴져요.

<안나(Anna, 거주관광객). 30대. (2014. 05. 13)>

나도 뉴꾸닝 마을에 사는 것 만족해요. 임대료가 조금 비싸고, 인터넷이 조금 느린 것 정도가 불만이죠. 근데 어쩔 수 없죠. 좋은 점은 다른 곳보다 깨끗하고 조용해서 좋은 것 같아요. 관광객이 많지는 않은데 마을 주민이 아침, 저녁으로 매일 청소하는 것 같고, 차가 별로 없어서 차량이 정체되거나 혼잡하지도 않고, 낮에 우붓 나가면,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관광객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고르(Igor, 거주관광객). 30대. (2014. 05. 13)>

이고르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다. 일의 특성상 원거리 근무가 가능하기에 여자 친구인 안나와 함께 발리 지역으로 1년간 거주할 예정으로 이주했다. 임대할 집을 찾다가 우붓 중심가 식당에 있는 입간판 광고를 보고 마을에 집을 구한 경우이다. 이들이 뉴꾸닝 마을에 거주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보다 마을의 위치와 생활환경이 주는 편리함 때문이다. 우붓 중심가와 달리 일반 관광객이 거의 없지만, 우붓 중심가와는 멀지 않는 위치 때문에 뉴꾸닝을 선택한 것이다.

주목할 점은 안나가 뉴꾸닝 마을에 거주하면서 느끼는 만족감을 어디에서 찾느냐이다. 안나는 뉴꾸닝 마을 주민들의 행위를 보면서 안전함이라는 가치를 찾는다. 전통의상을 차려 입은 주민의 모습이 그녀에게 더욱 안전한 지역임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더욱이 안나의 진술에서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전통의상을 입고 다니는 모습”은 실제 마을의 지킴인 역할을 하는 삐짚랑(pecalang)이다. 이들은 해질 무렵 마을 곳곳을 순찰하는데, 이들의 기본 복장이 발리 전통의상이고 이들이 외국인에 대한 친절함은 안나에게 친숙성과 함께 안전함을 담보한다.

이고르와 안나를 포함하여 마을의 거주관광객 대부분은 마을 종교의례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이는 앞서의 논의처럼 우붓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관광객들의 성향, 즉 최소한의 관계만을 유지한 채 복

잡하고 번잡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는 경향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뉴꾸닝 마을의 일부 거주관광객은 마을 주민 행사에 참가하고 때로는 힌두의식에 참여하여 후원금을 기부한다. 호주인 탐(Tom)의 경우 우붓 지역에서 1년 정도 거주하였다. 조사 당시 35살인 탐은 발리 섬에 계속 거주하지 않고, 1년 중 8개월은 호주에서 나머지 기간은 발리에서 머무른다. 그는 우붓의 자연환경과 편안한 일상 특히 발리인의 친절함이 좋았다고 한다.

발리에서 가장 좋은 점은 자연환경과 사람이예요. 호주도 깨끗하고 좋은데, 약간 인위적인데 반해 발리는 자연 그대로인 점이 좋아요. 사람들의 친절도 마음에서 나오는 진짜 친절함 같아요. 대학 다닐 때는 발리에 오면 거의 남쪽 지역에 있었는데, 이제는 우붓에서 거의 살아요. 처음 우붓에 살았던 곳이 뉴꾸닝 마을이에요. 마을에서 몇 개월 살다가 다시 호주에 있다가, 몇 년 뒤 우붓에 다시 와서 살았던 곳은 다른 마을이고요(팽오세간 마을, 필자주). 이전 마을에서 잠깐 살다가 뉴꾸닝 마을로 왔어요. 옛날부터 알고 지냈던 발리인 친구가 있어 그 집을 빌려서 살아요. [지난번 오고오고 제작 할 때 기부금도 내고, 가끔씩 마을 의례에도 참석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기부금은 발리 친구 때문에 십만루피아 냈어요. 제가 이 마을에 계속해서 살지 안 살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현재는 살고 있으니 행사 있으면 친구 부탁도 있고 해서 기부금을 내요. 마을 의례 참석은 발리인의 문화가 신기하고 궁금하기도 해서요. 한달에 대략 수십번은 의례가 있는데, 다 참석하지는 못하고, 오고오고 같은 큰 행사만 참석해요. 그래도 참석하면 주민이 반겨주고, 이것저것 알려주고, 아마도 기부금을 내서 그런가 봐요.

<탐(Tom, 호주 출신 거주관광객). 30대. (2014. 04. 26)>

탐은 뉴꾸닝 마을에 거주하면서 주민의 의례나 행사 등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한다. 의례나 마을 행사 참석은 타문화에 대한 관심의 반영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마을 구성원으로 역할을 하려는 의도도

였보인다. 특히 기부금을 내는 행위를 통해 이러한 의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개진한다.

<사진 4> 마을 의례에 참여중인 거주관광객



한국인 김하늘씨의 경우도 탐과 비슷하게 마을 의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이다. 김하늘씨는 가족과 함께 발리 지역으로 이민 온 후 현재는 뉴꾸닝 옆 마을인 싱아거르따(Singakerta)에 거주한다. 싱아거르따로 이사 가기 전 김하늘씨 가족은 뉴꾸닝 마을에 2년간 거주하였다.

[우붓에 정착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특히 뉴꾸닝 마을에 거주하게 된 이유는요.] 이민은 아이들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 살 때도 우리는 공동육아, 대안학교 등 아이들이 좀 더 자유롭게 교육 받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었어. 정규교육 과정에 대한 불신도 있었고. 그래서 발리로 이사했어. 현재 아이들은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함께 어울리고, 영어와 인도네시아를 사용한 환경에서 자라서 이민 오길 잘한 것 같아. 처음 뉴꾸닝으로 이사하게 된 특별한 이유는 없어. 집을 구하다 보니까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 아이들 다니는 빨랑이 학교가 가까운 점이 좋았어. 마을도 아담하고 안전한 것 같고. [뉴꾸닝 마을에 사시면서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같은게 있었나요?] 현재는 싱아거르타에

살고 있는데 뉴꾸닝에서 약 2년 정도 살았어. 발리 이사 와서 처음 살았던 마을이니 정도 많이 들었고, 마을에 아는 사람도 많아서 좋았고 가장 좋은 점은 뉴꾸닝 마을이 다른 마을에 비해 안전하다는 느낌이 있어. 마을 뼈짚랑 들이 조금은 문제이지만, 그래도 이들 때문에 마을이 다른 마을로부터 보호 받는다는 생각이야. [마을 의례나 행사는 많이 참여하셨나요?] 우리 가족은 마을 행사에 많이 참여했어. 내가 현지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이민 초기에는 우리 가족 전부 다 전통의상 입고, 이런 저런 행사나 의례에 많이 참석했어. 아마도 그래서 뉴꾸닝에 2년 밖에 안 살았는데 주민들도 많이 알고 정도 많이 들었어.

<김하늘(교민). 40대. (2012.9.27.)>

김하늘씨가 뉴꾸닝 마을 의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현지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현지 문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싶은 바람 때문이었다. 특히 김하늘씨가 처음 이주 후 뉴꾸닝 마을에 거주하게 된 이유에 주목한다. 그는 뉴꾸닝 마을이 아담하고 안전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가족과 함께 이민을 온 그에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가족의 건강과 안전이다. 이런 측면에서 주민 집단에 의해 마을 청소가 매일 같이 진행되고, 마을 의례나 행사 등이 실천되는 광경은 김하늘씨에게 뉴꾸닝 마을이 “안전한”, “믿을 수 있는” 마을로 인식하는데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동시에 그 역시 마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마을 의례나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인식은 더욱 굳건해 졌다.

뉴꾸닝 마을은 행사나 의례 진행시 부족한 운영비를 개인이나 단체의 기부금을 통해 진행한다. 앞서 탐의 경우처럼 마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지위를 재확인받기 위해 개인적으로 기부금을 내는 경우도 있고, 뉴꾸닝에서 식당, 상점, 호텔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기부금을 내는 경우도 있다. 마을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뉴꾸닝 주민이기에, 이들의 기부 행위는 원활한 의례 진행을 위한

<사진 5> 의례 기부금 명단

<사진 6> 거주관광객과 삐잘랑



운영비 보조 차원에서 이해된다. 주목할 점은 다른 반자르 출신의 사람이거나 외국인이 기부를 한 경우이다.

뉴꾸닝 마을에 위치한 A호텔은 객실이 6개 있는 소규모 호텔이다. 호텔 주인은 자카르타에 거주하기에 매년 두 차례 호텔을 방문하고, 호텔 운영은 지배인인 수마(Suma)가 책임진다. 수마는 뉴꾸닝 출신이 아닌 덴파사 출신이다. 수마 이외 호텔 직원들 대부분도 마을 주민은 아니다. 2013년 조사 당시 A호텔 직원 중 마을 주민은 객실 청소를 하는 여성 직원 일부였다. 수마는 마을에서 진행되는 의례에 참석하지는 않지만, A호텔 이름으로 이십만루피아(IDR.200,000)에서 오십만루피아(IDR.500,000)의 돈을 기부한다. 마을 장례식 같은 큰 행사인 경우는 오십만루피아를 기부하고, 마을 사원 오달란(odalan)<sup>6)</sup>의 경우 이십만루피아를 기부한다.

사장님과 저를 포함해 호텔 운영진 중 이 마을 주민은 없어요. 사장님은 불교 신자예요. 청소하는 일부 직원만 마을 출신이고요. 그래도 저희 호텔 이름으로 거의 모든 의례에 기부금을 내요. 제가 먼저 사장님께 기부금을 납부하자고 제안했고 사장님도 흔쾌

6) 사원 신축한 날을 기념하는 발리 힌두 의례

히 허락했어요. 기부금을 처음 낸 계기는 마을에서 사업을 하니까 마을 주민 행사에 도움을 준다는 의미였어요. 더불어 의례 자체가 볼거리가 되어 호텔 손님들도 좋아하고요. 의례 있는 날은 호텔 손님에게 말해서 구경하라고 권하기도 하고요.

<수마(Suma, A호텔 지배인) 40대. (2013. 12. 20)>

뉴꾸닝 마을 장례식 당시 수마가 근무하는 A호텔을 포함해 6곳의 호텔에서 돈과 물품을 기부했다. A호텔의 주인을 포함하여 다른 호텔의 주인 역시 뉴꾸닝 주민은 아니었다. 호텔의 기부금은 무엇보다 의례와 같은 마을 행사에 주민이 아닌 자신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이러한 행위는 호텔 운영자들이 마을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 주민 집단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하나의 방안이다. 더불어 마을 의례 자체가 호텔 투숙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가 되기 때문이다.

발리의 의례는 주술이나 종교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상징적인 행위와 함께 의례 자체가 관광의 중요한 상품이다. 수많은 사원과 그곳에서 행해지는 전통의례, 사원에 제물을 이고 가는 여성들의 행렬, 의례에 수반되는 전통예능, 웅장한 화장 행렬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풍경이다(가중수 2010: 170-171). 호텔 입장에서 마을 의례가 좀 더 화려하고 볼거리가 풍부할수록, 투숙객은 호텔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한다.

뉴꾸닝 마을의 전략적 위치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건설된 주택 등 마을의 물리적 요소는 거주관광객에게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이들이 마을에 “거주”하게 하는 주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생활의 편리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혹은 개인의 기호에 의해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 장기간 거주하는 관광객의 경우 화려한 의례나 생활의 편리함과 더불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타국에 거주하면서 겪게 되는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욕구이다.

거주관광객에게 문화관광의 실천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유성’은 ‘안전’에 대한 욕구를 실현시키는 촉매로 작용한다. 이들은 주민의 의례 진행 과정을 통해 주민의 실제 삶을 경험한다. 특히 뉴꾸닝 마을의 경우 그동안 문화관광 마을이 아니었기에, 의례 진행 과정이 표준화되고, 수정되며, 상품화의 과정을 덜 겪은 측면이 있다. 물론 문화관광 마을이 아니었다고 이들의 의례 과정이 ‘무대화된 고유성’을 가지지 않은 ‘관광 공간’(Urry 2002: 9)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모든 문화가 실제 ‘무대화’ 되어 있기에 고유성은 원래부터 경험할 수 없고, 문화 자체가 발명되고, 창조되고 그리고 재조직화 되는 과정의 연속이기에 고유성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기도 한다 (Crick 1988).

중요한 지점은 주민 집단의 의례 실천 과정에서 거주관광객의 참여는 ‘안전’을 추구하는 이들의 문화적 실천 과정이다. 제이콥스 (Jacobs 2010: 62, 89)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과정은 공간적 분리 기제나 위험한 요소에 대한 격리 과정을 통해 획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안전은 사람들이 도시의 거리를 자발적으로 이용하고 즐길 때, 거리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유지될 때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 사람들 사이의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 확보되는 것으로 여겼다.

주민 집단의 의례 실천 과정은 그 자체로 거주관광객에게 화려하고 볼거리 풍부한 광경이 된다. 때로는 뉴꾸닝 마을의 의례가 우뚝 중심부나 인근의 다른 마을에 비하여 규모가 작고 화려하게 연행되지 않더라도 이들의 긍정적인 관광경험을 저해하지는 않는다. 거주관광객들은 전통의례에 직접 참여하여 주민과의 일상적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동료애와 동질성 등을 공유한다. 때로는 전통의례를 단순히 지켜보는 과정에서 이들의 인식에 뉴꾸닝 마을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마을로 변모하게 된다.

## 7. 결론: 관광매력물의 재인식

관광 연구에서 인류학자들은 여러 방식으로 관광을 호스트의 당위적 운명으로 개념화 시키거나(Stronza 2001: 268), 관광객의 경험보다는 관광대상물을 통해 ‘고유성’을 어떤 방식으로 투영시키느냐의 문제로 귀결시켰다(MacCannell 1973, 1976, 1979; Cohen 1988; Pitana 1993; Bruner 1994). 이러한 접근 방식은 호스트 사회가 가진 역사적, 사회·문화적 역동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관광대상물의 고유성을 중심으로 한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는 오류를 범하게 한다. 특히 관광대상물 위주의 관광 현상에 대한 이해는 문화상품 수용층인 관광객의 여행지에서 인식과 경험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뉴꾸닝 마을의 관광지화는 관광과 전통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상황의 특이성 때문이다. 2000년대 이전 뉴꾸닝 마을을 완전한 관광지로 분류하기에는 여러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관광객 역시 ‘예술인 마을’로 표상되는 우붓 중심부를 발리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관광지로 인식하지만, 뉴꾸닝과 같은 인근 마을을 관광지로 여기지는 않았다. 비록 우붓 중심부는 대중관광과 문화관광을 실천할 수 있는 관광지로 변모하였지만, 뉴꾸닝과 같은 주변 마을은 배후 관광지로도 성장하지 못하는 발리의 여느 농촌마을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었다.

고유성의 관점에서 이러한 상황을 해석하면 관광객은 전통문화와 관련된 춤과 음악 등의 공연을 우붓 지역에서 소비하는 과정에서 이를 ‘진품’으로 여기게 된다. 따라서 우붓 이외에서 진행되는 공연과 전통 의례 등은 고유성을 획득하지 못한 ‘가품’으로 여겨진다. 즉 발리 문화관광에서 고유성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객관적·구성주의적 고유성의 관점에서 이해되었고, 이는 ‘고유성’이 실제 존재한다고 여기거나 혹은 맥락화 되어 사회적으로 구성된 결과물로 존재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2000년대를 기점으로 늘어나는 거주관광객은 기존의 단기 관광객에 비하여 관광 실천 과정에서 다른 지향을 보인다. 이들에게 객관적·구성주의적 고유성에 대한 개념에서 비롯된 대상물 중심의 관광실천보다는 현지에 거주하면서 필요한 일상적인 만족과 안전이 더욱 중요한 가치이다. 즉 대중관광 시대 관광객이 발리 전통문화를 화려한 왕족의 장례식이나 수준 높은 공연에 찾았던 것에 비하여, 거주관광객은 일상생활에서 비롯된 생활양식에서 발리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향유한다.

거주관광객의 관광지에 대한 이러한 관념들은 이들이 관광 과정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실존적 고유성의 개념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유사한 형태로 보인다. 즉 관광대상물의 고유성만 강조하는 기존의 관점에서 보면, 거주관광객에게 뉴꾸닝 마을은 여전히 관광지로 각광 받지 못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거주관광객의 고유성에 대한 인식이 관광대상물이 아닌 관광경험 과정에서 획득한 존재론적 인식 과정으로의 변화는, 결국 뉴꾸닝 마을이 관광지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

특히 관광산업의 발전에 따라 전통이 다양하게 변모하고, 발리 전통의 종교와 관련 의례가 일상적으로 실천되는 과정을 거주관광객은 일상에서 목도한다. 주목되는 점은 이 시기 우붓의 거주관광객이 발리 전통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지점과 맞닿아 있는 점이다. 현지 주민의 생활양식인 거주지, 현지음식, 종교의례 등이 기존의 인식과 달리 ‘자연 친화적’, ‘안전한’, ‘보존해야 할 대상’ 그리고 ‘함께 경험해야 할 문화적 양식’ 등으로 인식 전환 과정을 겪으면서 관광경험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결국 우붓과 뉴꾸닝 마을의 사례는 관광발달과 전통에 대한 재인식과 연관된다. 관광발달을 위해 전통을 상품화 하는 과정에서 전통

은 그동안 주로 발명과 창출의 개념(Hobsbawn & Ranger 1983, 2006)으로 논의되었다. 전통이 과거에 생성되고 현재까지 전승되었다는 관념을 넘어 과거가 아닌 현재 속에서 ‘만들어진 전통’에 대한 담론으로 발전시키면, 전통을 둘러싼 더욱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진다(권혁희 2012: 15-16). 전통에 대한 이러한 담론은 결국 관광객의 고유성 획득 역시 기존의 관광대상에서 찾아낸다는 개념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결국 관광주체의 경험에서 비롯된 존재론적 인식까지 확장하여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특히 이러한 관점은 관광인류학의 주요한 논거점인 ‘호스트-게스트’의 관계를 재해석 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가 된다. 더불어 문화유산관광과 문화예술관광에 한정되던 문화관광의 범위를 관광객의 주체적 경험을 어떤 방식으로 진작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의 필요성을 야기한다. 결국 전통의 관광 상품화, 관광을 통한 경제적 성장, 지속가능한 관광 등에 대한 문화정책 수립 과정에서 우뚝 지역의 거주관광객의 사례는 “탁월한” 문화유산이나 과거로부터 “전승된” 전통문화에 국한된 그동안의 인식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 〈참고문헌〉

- 가종수. 2010. 『신들의 섬 발리: 지상 최후의 낙원을 찾아서』. 서울: 북코리아.
- 권혁희. 2012. “밤섬마을의 역사적 민족지와 주민집단의 문화적 실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사현. 2005. “文化觀光과 文化觀光者: 그 개념과 특성에 관한 試論.” 『관광학연구』 29(1): 9-26.
- 김희영·김사현. 2006. “탈근대성 시대의 고유성과 존재론적 고유성:

- 관광현상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0(1): 9-27.
- 맥커처, 밥·두 크로스 힐러리(조명환 역). 2008. 『문화유산 관광자원 관리론』. 서울: 백산출판사.
- 맥켄널, 딘(오상훈 역). 1999. 『관광객』. 서울: 일신사.
- 야마시타 신지(황달기 역). 1996. 『관광인류학』. 서울: 일신사.
- 정정훈. 2017. “발리 우붓 지역 관광발달과 전통의 재구성: 뉴꾸닝 주민의 문화적 실천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제이콥스, 제인(유강은 역). 2010.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서울: 그린비.
- 조윤미. 2006. “자바(Java) 사람들의 치안관행과 도둑잡기.” 『비교문화연구』 12(2): 93-122.
- 지선진. 2006. “제도화 정도에 따른 관광객 유형별 속성과 영향.” 『관광학 연구』 30(2): 363-380.
- 홉스봄, 에릭 외(박지향·장문석 역). 2006. 『만들어진 전통』. 서울: 휴머니스트.
- Bruner, Edward M. 1994. “Abraham Lincoln as Authentic Reproduction: A Critique of Postmodernism.” *American Anthropologist* 96(2): 397-415.
- Cohen, Eric. 1972. “Toward a Sociology of International Tourism.” *Social Research* 39(1): 164-189.
- \_\_\_\_\_. 1988. “Authenticity and Commoditization in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15(3): 371-386.
- Crick, Malcolm. 1988. “Sun, Sex, Sights, Savings and Servility.” *Criticism, Heresy and Interpretation* 1(1): 37-76.
- Dirks, Nicholas B. 1992. “Introduction: Colonialism and Culture.” Nicholas B. Dirks (ed.), *Colonialism and Culture*.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25.

- Graburn, H. H. Nelson. 1983. "The Anthropology of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10(1): 9-33.
- Hobart, Angela, Urs Ramseyer and Albert Leemann (eds.). 1996. *The People of Bali*. Oxford: Blackwell.
- Jay, Robert R. 1969. *Javanese Villagers*. Cambridge: The MIT Press.
- MacCannell, Dean. 1973. "'Staged Authenticity.' Arrangement of Social Space in Tourist Setting."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9: 589-603.
- Macrae, Graeme. 1999. "Acting Global Thinking Local in a Balinese Tourist Town." Rubinstein (ed), *Staying Local in the Global Village*.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_\_\_\_\_. 2014. "Ubud: Benteng Terbuka." *Jurnal Kajian Bali* 4(1): 1-14.
- Mann, Richard. 2013. *The Making of Ubud: Bali's Art, Culture, and Heritage Village*. Bali: Gateway Books International.
- Picard, Michel. 1996. *Bali: Culture Tourism and Tourist Culture*. Singapore: Archipelago Press.
- Pitana, I Gde. 1993. *Under the Shadow of Tourism: A Study of Socio-Cultural Impact of Tourism in Bali, Indonesia*. Mimeograph. Canberra: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 Pringle, Robert. 2004. *A Short History of Bali: Indonesia's Hindu Realm*. NSW: Allen & Unwin.
- Richards, Greg. 1996.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European Cultural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23(2): 261-283.
- Stronza, Amanda L. 2001. "Anthropology of Tourism: Forging New Ground for Ecotourism and Other Alternatives."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30: 261-283.

Turner, Victor. 1973. "The Center out There: Pilgrim's Goal." *History of Religions* 12(3): 191-230.

Urry, John. 2002. *Tourist Gaze Revisited*. London: Sage Publication.

Wang, Ning. 1999. "Rethinking Authenticity in Tourism Experience." *Annals of Tourism Research* 26(2): 349-370.

(2017.07.29. 투고, 2017.08.11. 심사, 2017.08.14. 게재확정)

<국문초록>

## 실존적 고유성과 관광매력물의 재인식: 발리 우붓 지역의 거주관광객

정 정 훈

본 논문은 인도네시아 발리 우붓 지역에 위치한 한 농촌마을에 대한 민족지이다. 뉴꾸닝 마을을 중심으로 관광발전에 따른 사회·문화적 전개 과정과 거주관광객의 문화적 실천방식을 고찰한다. 문화관광 발달에 있어 반자르의 역할 특히 전통 담론에 대한 재인식 과정은 마을 번영의 주요한 계기가 된다. 거주관광객을 중심으로 마을에 대한 요구, 이에 대응하는 현지주민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거주관광객과 주민집단은 한 공간에서 문화접변의 과정을 경험하고, 이는 각각의 집단이 전통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결국 거주관광객의 마을 거주는 기존의 객관적·구성주의적 고유성에 대한 개념에서 비롯된 대상물 중심의 관광실천에 대해 재고찰하는 계기가 된다. 거주관광객의 고유성에 대한 인식은 관광경험 과정에서 획득한 일상적인 만족과 안전에서 비롯된 존재론적 인식의 일부이다. 뉴꾸닝 마을이 관광지로 발전하는 과정은 거주관광객이 마을 전통을 실천하면서 획득하는 일종의 실존적 고유성의 관점에서 이해된다.

**주제어:** 실존적 고유성, 관광매력물, 발리, 우붓, 뉴꾸닝 마을, 문화관광, 거주관광객

<Abstract>

The 'Existential Authenticity' and the  
Re-recognition of Tourist Attraction:  
The Cultural Practices of Residential Tourists in Bali

JEONG Jeong Hun  
(Sogang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process of tourism development in Banjar Nyuh-Kuning, a rural village in Bali, and the cultural practices of residential tourist in this area. The role of Banjar in the development of cultural tourism, especially the process of re-recognition of traditional discourse, became the main impetus for the prosperity of the village. For this purpose, the demands of residential tourists in the village and the role of local residents in their response is discussed. Residential tourist and village community experience the process of acculturation under one space, which provides an opportunity for each group to newly recognize tradition. In the end, the residential tourist in the villages provide an opportunity to reexamine tourism practices the stemmed from the concept of existing objectivism and constructivism authenticity. The perception of the authenticity of residential tourists a part of the ontological awareness resulting from everyday satisfactions and

security in the course of experiencing tourism. The process of the development of Nyuh-Kuning village as a tourist attraction may be understood from the viewpoint of as a type of existential authenticity that the residential tourists acquire as they practice village traditions.

**Key Words:** Cultural Tourism, Tourist Attraction, Existential Authenticity, Banjar Nyuh-Kuning, Bali, Residential Tourist